

캄보디아 프놈펜 | 2026년 7월

아이들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7월 15일 밤, 프놈펜 공항.

학생 여섯 명과 교사 한 명이 캐리어를 끌고 섰습니다.

일곱 사람 모두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여권도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비자도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는지, 하나하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아침, 인천에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열이레의 기록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보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를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시간, 하루를 닫는 시간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여정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 준 것은 매일 반복된 두 번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정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 무엇을 보게 될지. 아이들은 목적을 알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둘러앉아 나눴습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매일 같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서, 캄보디아에 가져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같은 장소에 가도, 구경하러 간 아이와 가져갈 것을 찾으러 간 아이는 다른 것을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매일 저녁 자기가 찾은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끝나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열이레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첫날 — 환대

인천에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일영도교회에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주신 교회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따뜻한 저녁을 사 주셨고, 거대한 배 모양의 커피숍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케이크와 음료를 앞에 두고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비행과 이동으로 지쳐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기억이 **환대**였다는 것, 이것이 이번 여정 전체의 색깔을 정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 말이 통하지 않아도 (7월 17일 ~ 19일)

사흘 동안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준비된 환대

제일영도교회에서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배울 내용을 미리 보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번역된 교재를 손에 들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지, 교육하는 사람은 압니다. 손님을 맞는 것과 손님이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벽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첫날 아이들은 서로 쑥스러워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서로를 흘깃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아이들은 금세 섞였습니다. 단어가 모자라면 몸으로 설명했고, 그래도 안 되면 함께 웃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

성경학교가 끝난 뒤, 제일영도교회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6학년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장 말을 듣지 않는 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 학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요.

저희는 받으러 간 줄 알았습니다. 섬김을 받고, 배우고, 구경하고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받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아이들이, 가진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함께 수영장에서 뛰놀았습니다.









감천문화마을 — 아이들이 가장 오래 이야기한 곳 (7월 21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이 감천문화마을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니까요. 아쿠아리움이나 과학관처럼 움직이고 만질 것이 있는 곳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오래 이야기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과학관보다도요.

아이들이 본 것

산비탈에 색색으로 들어선 집들 앞에서 아이들이 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을 깎지 않았어요."

집을 짓겠다고 산을 밀어 버린 것이 아니라, 산등성이의 생김새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집을 올렸다는 것. 아이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해요."

곧게 뚫을 수도 있었을 텐데, 땅의 모양을 따라 길이 휘어 있다는 것. 자연을 밀어내지 않고 자연에 맞춰 지은 마을이라는 것.

오래된 것이 아름다워지는 길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감동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낡은 집들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박물관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캄보디아에도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은 대개 낡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지켜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직 낯섭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날, 오래된 것을 대하는 다른 방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을 봅니다.

그 밖의 부산 — 바다와 도시 (7월 20일 ~ 22일)

20일, 해변 열차를 타고 바다를 따라 달렸고 아쿠아리움에 들렀습니다.

21일, 감천문화마을에 이어 화폐박물관과 국제시장, 과학관을 지나 저녁에는 다대포에서 바다와 분수를 보았습니다.

22일, 송도에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용의 머리 모양을 한 유리 다리 위에 섰을 때, 발밑으로 바다가 비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쿠아리움과 과학관에 대해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에 들고 가고 싶어요."

















경주 (7월 23일)

하루를 들여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아레나 체험도 했습니다.

천 년 전의 이야기가 돌과 땅에 남아 있는 도시였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품었던 생각이 경주에서 한 번 더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것을 지켜 온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캄보디아에도 앙코르가 있습니다.

반디기독학교 — 또래의 교실 (7월 24일)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디기독학교를 방문해 또래 친구들이 어떤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난타

그리고 그날,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난타를 즉석에서 배워 연주해 보았습니다.**

처음 잡아 보는 채였습니다. 처음 들어 보는 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구나. 우리 아이들 안에 이미 들어 있던 것이, 북채를 쥐는 순간 터져 나온 것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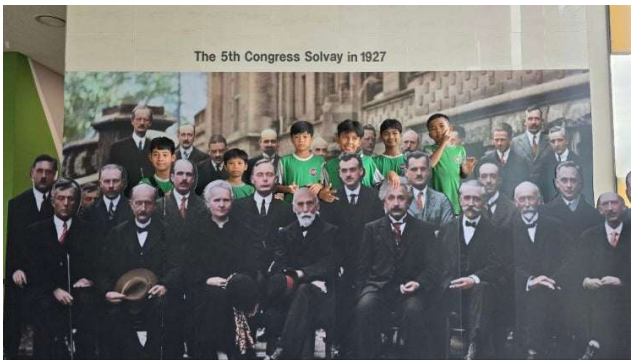
아이들의 질문

그날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기독교 학교가 많아요?"

오후에는 익스트림파크에서 마음껏 뛰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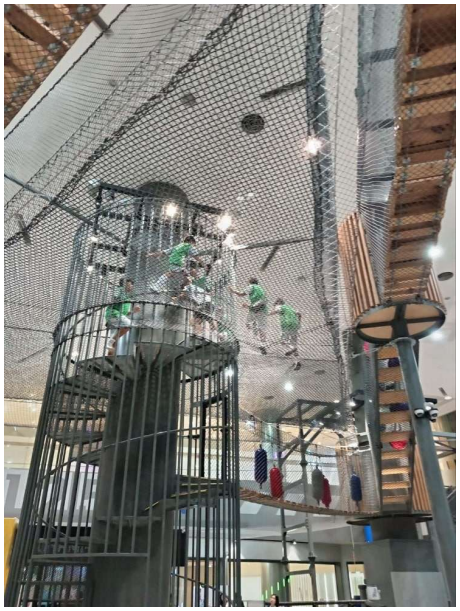













서울에서의 일주일

7월 25일, 서울로

부산에서의 열흘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책의 숲 (7월 27일)

코엑스와 **별마당 도서관**에 갔습니다. 천장까지 솟은 책장 앞에서 아이들이 고개를 젖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책은 아직 귀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낯섭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만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섰습니다.

4D프레임 본사 (7월 28일)

4D프레임 본사를 방문해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올해부터 STEAM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교구입니다. 교실에서 쓰던 막대와 연결 부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직접 만져보며 경험했고, 본사 선생님들께 직접 배워 몇 가지 작품들도 만들었습니다.

내년 10월, 저희 학생들이 4D프레임 세계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7월의 이 하루가 그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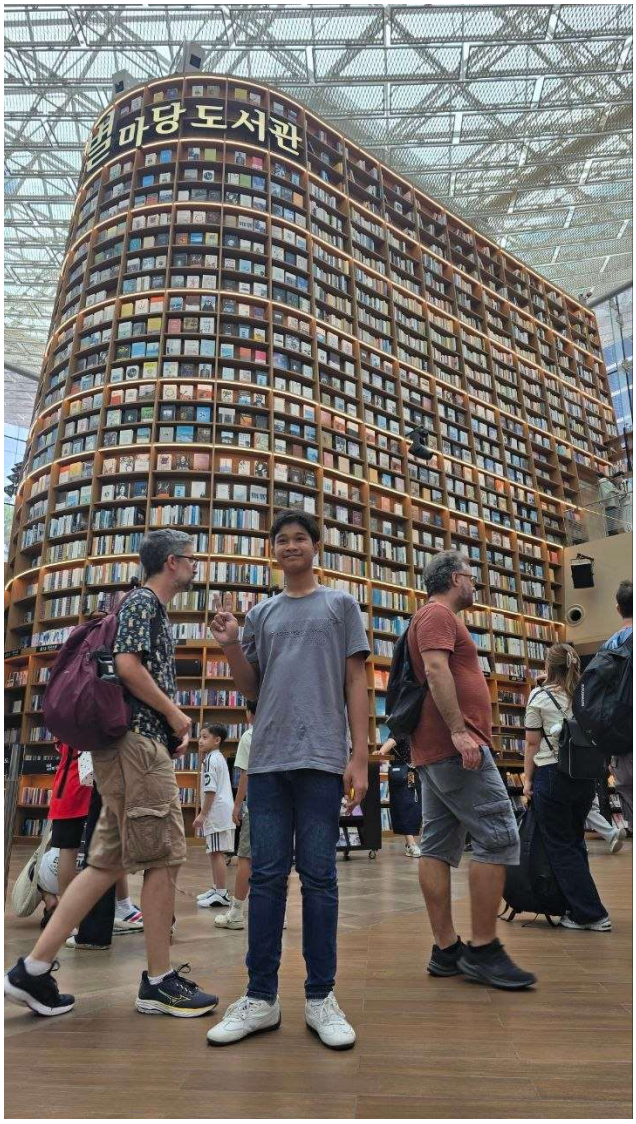
오후에는 수락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맑은 계곡물을 만난 아이들이 가장 크게 웃은 날이었습니다.















광화문과 한복 (7월 29일)

광화문에 갔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교보문고에 들렀습니다.

다른 나라의 옷을 입어 보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는지를 몸으로 아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들 (7월 30일 ~ 8월 1일)

30일, 하남 모토 스튜디오에서 레이싱을 체험하고 스타필드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31일, 롯데월드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8월 1일, 숙소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락산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이터에서 뛰었습니다.

떠나기 전날의 아이들은 조금 조용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이들은 자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간 선생님도 아쉬워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기만 한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네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저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초청해 주신 교회 — 제일영도교회
숙소를 내어 주신 교회 — 제일영도교회, 거제교회, 문광교회, 한사랑교회
그리고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예배로 저희를 맞아 주시고 방문하게 해 주신 교회들입니다. 도착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제일영도교회 · 기장교회 · 사직동교회 · 거제교회 · 대구광명교회 · 문광교회 · 은혜광성교회 · 아름다운 만남 선교회 · 일산교회 · 벧엘교회 · 은혜교회 · 다산중앙교회 · 가좌동광교회 · 선교중앙교회

모든 교회가 크고 작게 저희를 섬겨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쥐여 주셨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고, 여비를 보태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것은 이 분들이 아껴서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인사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받는 법을 배운 아이는 주는 법도 배웁니다. 열세 교회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


열터 선교사 소명
복음의 물멧돌 훈련으로


벨엘 권사부
알림





아이들이 가져온 것

열이레 동안 매일 저녁, 아이들은 같은 질문에 답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져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대답을 그대로 옮깁니다.

교통질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말한 것이었습니다.

차들이 줄을 서는 것. 신호를 지키는 것. 사람이 건널 때 멈추는 것.

프놈펜의 거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질서가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쿠아리움과 과학관

"이건 캄보디아에 들고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법

산을 깎지 않고 지은 집. 지형을 따라 휘어진 길. 낡은 것을 허물지 않고 아름답게 가꾼 마을.

그리고 — 기도

이것이 아이들의 마지막 대답이었고, 저에게 가장 울린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한국의 밤하늘에 붉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것을,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교회마다 아이들이 똑같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열이레 동안 아이들은 바다를 보았고, 책의 숲에 섰고, 북을 두드렸고, 놀이공원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가져오고 싶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러 데려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다시 오겠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냥 아쉽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GMIS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대학 공부를 하러 오겠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올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오겠다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
저는 요즘 아이들이 4D프레임 세계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 다짐을 떠올립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면 한국에 다시 갈 수 있다. 아이들에게 10월의 대회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세계 대회에 희망을 거는 진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들아, 산들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연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들아, 산들아, 다시 만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함께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산을 보려면 몬돌끼리나 라타나끼리까지 가야 합니다. 끼리롬이나 깜뽕싸움에 산들이 있긴 하지만, 프놈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나무와 산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만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열이레 동안 아이들이 만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 글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열이레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쓰려면 열 편으로도 모자랍니다.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 매일 저녁 나눔에서 나온 이야기들, 교회마다의 장면들 — 다 적지 못하고 접어 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본 만큼 꿈꿉니다. 프놈펜만 본 아이와 다른 나라를 본 아이는 자기 인생을 다르게 상상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여섯 명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를 아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학교 전체의 눈높이가 함께 올라갑니다.
생애 처음 여권을 만들고, 처음 비행기를 탄 아이들이 돌아와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정에 쓰인 모든 비용과 수고가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무들과 산들에게 다시 만나자고 인사한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길을 내겠습니다.
기도 제목
1. **아이들의 마음에 심긴 것** — 이번에 본 것이 한때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되도록
2. **10월 4D프레임 세계 대회** — 아이들이 "다시 가겠다"던 그 약속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도록
3. **중·고등학교 과정 인가** —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4. **함께해 주신 교회들** — 저희를 섬겨 주신 열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캄보디아와 GMIS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사진과 소식은 GMIS 페이스북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MIS2015/